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 나타난 아놀드의 고전성

김 선 희*

목 차

- I. 서 론
- II. 역사의식
- III. 현대정신
- IV. 지적 구원
- V. 고전성과 걱정성
- VI. 결 론

I. 서 론

매슈 아놀드(Matthew Arnold)의 시대인 빅토리아 시대는 주지하다시피 영국의 산업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 현대화와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던 위기의 시대였다. 또한 교육 문제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기본 질서의 유지 사이의 긴장 관계가 문화적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사회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대이기도 했다.

아놀드는 당대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중산층의 저속성, 사상이 결여된 물질주의, 개인주의와 지성의 결여를 통탄한 사회 문화 비평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산층이야말로 문화 발전을 좌우하는 중추적 계층임을 확신하고 이들의 道德的 質을 향상시키는데 진력하였다. 그는 건전한 인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생각해 내고 말해온 최상의 것”(the best that has been thought and said in the world)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조화와 통합을 이룬 인간 완성을 위하여 정신 문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는데, 시대의 문제에 대한 아놀드의 해결방안은 인간의 삶 전체에 걸친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아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늘드는 시대의 대세에 합류하지 못하는 영국의 고립성과 폐쇄성을 공격했으며 따라서 그의 비평 내용은 당연히 당대 현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에 아놀드의 영국 사회 평가의 주된 방향은 유럽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대한 무감각을 비판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본고가 논하려고 하는 “문학의 현대적 요소”(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 (1857)에서의 知的 救援(Intellectual Deliverance)도 이러한 영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아놀드는 영국 지성의 커다란 결함을 지적하면서 영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요구되는 그것, 곧 비평”(just that very thing which now Europe most desires-criticism)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혁자적인 책임감²⁾을 가지고 19세기의 시대적 문제들을 다루는 자신의 비평의 양상을 두 가지, 즉 지성과 도덕성의 구원이라 언급하고, 시대를 적정하게 해석한 문학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놀드는 시대 정신이 가져오는 변화를 증시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지적 풍토에 대한 그의 인식은 특히 1840년대 말 그리고 50년대에 시작되어 일관된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는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 두 가지 구원, 곧 도덕적, 지적 구원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그의 비평의 성격이 지적 구원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이후의 아놀드의 비평의 개념은 정신적 곤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적 구원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는 유럽 대륙 문화의 흐름과 궤도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비평 사상의 체계를 수립하고 그 시대의 비평 사상을 강조하는 비평 문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스포드 대학의 시학 교수가 되어서도 시인의 소재 선택에 대한 아놀드의 관심은 “1853년의 서문”(The 1853 Preface)에 이어서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아놀드의 사상의 중심을 이루면서 비평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문화 비평의 근거가 되는 평론으로 평가받고 있다(Schneider 60). 더욱이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들에게 중요한 귀감이 되는 고대 그리스 작가들이 다루어진 점에서 “1853년의 서문”의 연속이면서 수정안으로 중시되고 있다.³⁾

1) Matthew Arnold, *Th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Vol. I, R. H. Super, ed.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5), p. 40. 이하 이 텍스트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CPW, 페이지)로 표기함.

2) 비평가로서 개혁자적인 아놀드의 책임감은 “Not as I feel rather as a reformer in poetical matters. ... More and more I feel bent against the modern English habit of using poetry as channel for thinking aloud, instead of making anything.”이라는 편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참고: Matthew Arnold, *Unpublished Letters*, pp. 15-17.

3) “1853년의 서문”에서보다 발전된 고대 문학에 대한 아놀드의 확신은 1854년 썸프 비브와와의 서신 교환에서 굳혀졌으며 이들은 과거라는 시의 제재 선택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참고: Sidney Coulling, “Matthew Arnold’s 1853 Preface: Its Origin and Aftermath”, *Victorian Studies*, p. 257. 한편 이 수정안에 대해 Carroll은 “1853년의 서문”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이 “문학의 현대적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아놀드는 과거로 되돌아가서 정신의 황폐감에서 구원을 받았고 당시의 격동을 지적인 발아, 곧 도전과 기회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참고: Joseph Carroll, *The Cultural Theory of Matthew Arnold*, p. 42.

또한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의 아놀드의 의도는 지적이고도 심미적인 理想으로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는 그리이스를 현재 문체점에 대한 도피처가 아니라 완전을 구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제시했다. 현대는 과거와 미래에 관련을 맺을 때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놀드는 그리이스를 전형으로 제시하고 도덕적 지침을 주려고 했다. 이에 아놀드의 완전의 추구는 과거와 현재의 이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역사 질서에 순응하는 개인 정신의 질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의 사상은 문학 이론의 제시에서 지적 구원이라는 비평 의식과 문학의 적정성(adequacy)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비평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장차 아놀드의 비평의 성격과 그 비평의 대상이 유럽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평론이다(Carroll 40).

한편 오늘날 현대 사회는 정신적 붕괴와 가치관의 상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심화되어 정신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가 당면했던 정신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속한 사회 발전의 부산물로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해결 방안이 절실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상은 바로 현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상과 유사하며 이런 유사성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어 이 시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영국민들의 정신적 도덕적 혼돈상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이스의 고전을 통해 정신 문화를 주창한 아놀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 나타난 아놀드의 역사의식, 현대 정신, 지적 구원, 그리고 문학의 정적성을 중심으로 아놀드의 고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역사의식

빅토리아 시대의 주요 지식인으로서 당대의 변화하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문인이 드물었지만, 그 중 아놀드는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시대 문제에 대응해 나간 비평가이다. 아놀드는 영국이 비평적 변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 오는 사회는 자유 또는 평등이 주요한 특징이 되는 새로운 민주사회라고 확신하면서 무엇보다 당대의 현실을 전환기로 인식하였다. 즉 현대화란 사회 전부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아놀드는 당대의 변화를 현대화의 물결로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⁴⁾.

사실 영국의 19세기는 고전 연구에 있어서 제 2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으며 (Livingstone 26) 당대 문인들 머콜리(Macauley), 밀(Mill), 러스킨(Ruskin), 패이터(Pater) 역시 헬레니즘에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19세기의 현대성(Modernity)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

4)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아놀드의 비평의 전환점을 이루는 평론이며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아놀드의 비평태도에 대해 쿨링은 마치 고독의 내면의 세계에서 외부의 세계(the world without)로 빠져나온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참고: Sidney Coulling, *Matthew Arnold and His Critics*, p.60.

져, 과거를 통한 분석에서 그 유사성을 찾으려고 했다. 과거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은 당시 문인들의 공통된 현상이었지만, 대부분 이들은 하층민의 열악한 삶의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한 반발과 상실해 버린 기독교 신앙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응책으로서 그 理想을 그리이스의 고전에서 발견하려고 했다. 이런 산업사회의 현대화의 변혁기에 느껴지는 사회 현실에 대한 아놀드의 갈등은 "Oberman Once More"에서 "옛것은 이제 낡은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고..." (But now the old is out of date/ the new is not yet born...)이라는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대가 가져오는 고통과 갈등에서 빠져나와 정신적 가치와 인간적 요구로 조화를 이루는 산업사회를 추구하도록 안정을 제공한 것이 다름아닌 과거였다.

아놀드는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 시대에 대중의 지적 성숙은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빅토리아 시대의 현실에 직면했다. 아놀드에 의하면, 과거의 삶은 역사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중을 가르치는 것이 역사이지만, 이 임무가 역사가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아놀드는 생각했다. 그는 역사에 지식을 널리 알리는 철학자의 임무를 포함시켜서 역사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현재, 곧 문명화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놀드는 역사를 통하여 시의 영역을 선언하려고 했다⁵⁾. 즉 현대 시인의 문학적 소재는 일상의 묘사 재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은 독자를 활기있고 고상하게 해주는 문학이므로 민주주의가 성행했던 페리클레스의 아테네, 로마 공화정 시대와 같은 과거도 시인과 역사가에게 훌륭한 소재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물론 여기서 시대의 개념이 문제시되겠지만, 위대한 시대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역사의 위대한 시기란 아놀드에게는 역사와 시의 제재가 되고 있는 페레클레스 시대, 로마의 마지막 시대, 엘리지베스 시대, 빅토리아 시대를 의미하며 이들 시대는 모두 국민의 미래의 삶과 복지 그리고 국가에 영향을 준 시대이다. 아놀드는 이들 각 시대의 발전을 가져온 특성을 평가하면서 페리클레스 시대의 모습을 추적했으며 그 결과 그리이스의 페리클레스 시대는 적극적이고도 비평적 상태가 유지된 시대임을 인식하고 모든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한 인간 본성에서 고대의 현대적 요소를 찾으려고 했다.

따라서 아놀드의 인간 사회에 대한 지복의 개념은 역사 의식과 국가의 성격 구조와 연관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지복의 사상은 직접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삶에 관련되고 있다. 곧, 이것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아놀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의 완성은 개인의 완성에서 시

5) 일정한 시대의 존재성, 현대사상, 사실과 법칙의 중요성, 시대 해석자로서의 시인과 역사가 등에 관한 아놀드의 역사관은 일반적으로 부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수정되었다. 참고 : Mary W. Schneider, *Poetry in the Age of Democracy*. pp.62-65.

6) 시대 변화의 요구에 따른 아놀드의 시의 제재 선택과 고대 그리이스 문학에 대한 관심은 Clough와의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 Matthew Arnold, *The Letters of Matthew Arnold to Arthur Clough*. p.146.

작된다는 개념이다. 때문에 사회의 견본은 개인이며 완전은 개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놀드는 그리이스가 완전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상 평범한 체험의 핵심, 즉 인간의 영원한 자아(완전)를 중시여기고 삶을 다룬 비평의 깊이성, 건전성에 따라 작가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역사에 대한 아놀드의 의도는 시대의 특징을 해석하고 독자에게 통찰력을 제시하는 시인에게 시인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것이기도 하다 (Schneider 62).

그렇다고 아놀드는 시의 제재로써 과거를 선택하는 것이 당대의 문체에서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853년의 서문”에서 “에트나산의 엠페도클레스”를 삭제하고 고전을 강조한 점은 근본적으로 질서, 권위, 중심성을 중시여기는 아놀드의 취향을 드러내지만(Coulling 246), 그는 고전을 문학, 삶의 안내자, 삶의 비평으로 인식하면서 인간의 완전, 구원을 목표로 하는 헬레니즘과 기독교 정신에 연결시켜 “위대한 정신적 규율”(great spiritual discipline)로 보고 있다. 때문에 그는 “1853년의 서문”에서 과거라는 시의 제재 선택을 변호하면서 그리이스 시인, 세익스피어도 과거에서 제재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즉 아놀드에 의하면, 그리이스 시인들은 시대를 해석했으며 이들이 살았던 민주주의 시대는 시인에게 훌륭한 제재를 제공했고 현대 시인의 제재는 일상적 삶의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시인은 시대를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표상하는 작가나 지도자는 현대적이라고 아놀드는 주장하고 있다. 괴티(Goethe), 생뜨 비브(Sainte Beuve)⁷⁾가 현대(modern)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모두 최근의 일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아놀드에 의하면, 현대는 국민의 지적 성숙이 나타나는 문명이 진전된 상태를 의미하면서 순환되는 것인데, 문명의 발전이라는 영광은 지속되지 않으므로 아놀드는 현대 사회에 대한 해석에 몰두했다. 전반적으로 현대 정신은 권위를 거부하는 적극적 비평 정신을 의미하듯이, 아놀드에 의하면 그리이스인은 현대적이라 할 수 있다. 곧 그리이스인은 비평적, 적극적이었으며 상상력과 이성의 통합으로 빅토리아 시대가 해내야 하는 것을 이룩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아놀드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공허감, 절망감, 덧없음의 감정이라는 정신적 고립때문에 고대인이라는 과거의 형식을 수용하는데 방해를 받았다. 아놀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시에서 이러한 고립감을 강력하게 노래한 바 있지만⁸⁾, 시인을 위한 최고의 본보기는 고대인들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1853년의 서문”에서 아놀드는 시인도 역사가처럼 과거를 시의 제재로 선택할 수 있음을 주

7) 아놀드에 미친 Sainte Beuve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유럽 비평가들 가운데서 Sainte Beuve의 *Portrait Poterrière*는 아놀드 비평의 모델이 되기도 했듯이 아놀드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실을 두번씩이나 인정할 정도였다.

8) 아놀드는 자신을 “a man in fragments”(Unpublished Letters, p.18)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이런 내면의 갈등을 오래 허용하지 않고 해방, 또는 구원의 수단으로 지적 구원을 제시했다. 참고: John P. Farrell, “Matthew Arnold and the Middle Ages: The Uses of the Past”, *Victorian Studies* 13 (3), p.320.

장한 바 있다. 그는 이 평론에서 젊은 시인들에게 고대인의 우수성을 강조했는데, 이 사실은 낭만주의의 시적 경향에서 비롯되는 혼란 속에서 시인에게 전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그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놀드의 주장처럼 시인은 이들 고대인에게서 탁월한 행위를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곧, “인류에 영원히 존속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원초적 애정에 호소하는 것”(the great primary human affection: to those elementary feelings which subsist permanently in the race, and which are independent of time) (CPW, I, 4)을 배우게 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고대인에서 아놀드가 중시여기는 점은 행위의 연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표현하는 점과 행위를 부분보다 전체로 다루었을 때 오는 효과를 배워야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구성력 (Architectonic)의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아놀드는 질서와 절제의 균형을 중시하고 이 균형의 본보기를 고대 그리이스에서 찾고 있다.

물론 여기서 아놀드가 당시 낭만주의의 시적 경향과는 달리 스스로를 고전주의자라고 인식하면서 왜 “불멸의 최고의 형식미”(the immortal beauty of consummate form)의 중요성을 추구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데일(Dale)이 지적하듯이, 아놀드가 완벽한 형식미를 고대인들의 심미적 완성과 동일시했고 또 역사의 순환 법칙을 믿어 빅토리아 시대의 자의식과 사회의 복잡성은 그리이스의 번영에 필적한다고 생각하여” 고대 문학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143). 곧, 역사에 대한 아놀드의 기본적인 생각은 빅토리아 시대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복잡성에 있어서 그리이스와 유사하다 개념이다. 아놀드에 의하면, 역사는 계속 향상되는 움직임의 연속이거나, 사회적 전체와는 동떨어진 일상적인 방법으로의 움직임, 또는 적정한 배율로 조합되어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역사관은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 “이 두가지의 화합, 즉 위대한 시대와 문학의 공존 현상”(the coexistence, simultaneous appearance, of a great epoch and a great literature) (CPW I, 23)이라고 지적하는데서도 알 수 있으며, 아놀드는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시대를 역사, 곧 그리이스에서 찾았다. 이에 아놀드는 빅토리아 시대는 과거 그리이스처럼 지적 고전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원전 5세기 그리이스의 심미적 업적을 중시여겨 고대인에 대한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이스에 대한 아놀드의 이해는 시적, 문화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가 그리이스의 시에서 발견한 것은 장엄한 문체 (grand style)와 구성력이라고 풀이되고 있다(Parrinder 123). 이런 맥락에서 고대인의 전체성(완전)이라는 형식주의는 “구성력”과 “장엄한 문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성력으로 아놀드가 의미하는 것은 “구성적으로 질서가 잡힌 시”(architecturally ordered poem)이

9) 아놀드는 역사 발전의 순환에 의하여 19세기를 문명의 쇠퇴기로 보는 Vico, Niebuhr 등의 견해에 반대한 반면, Burke, Herde의 영향을 받아 역사는 진보, 변화한다고 믿어 빅토리아 시대는 그리이스처럼 영웅중심의 귀족사회에서 더욱 민주적인 국가 형태로 탈바꿈하는 ‘현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처럼 아놀드는 낙관론적인 역사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고: John P. Farrell, “Matthew Arnold and the Middle Ages: the Uses of the Past”, *Victorian Studies*, pp. 320-21.

라고 설명할 수 있다(Dale 146). 때문에 아놀드는 이 구성력을 중시여겨 “현대의 문학적 요소”에서 “규율”(regulative laws)(CPW, I, 35)과 페리클레스 시대의 “지적 구원”의 문화적 조건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아놀드는 1858년 *Merope*의 서문에서 당시의 대부분 시인들은 영문학을 풍요롭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서 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리이스 문학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서문에서도 아놀드가 소포클레스의 “형식미”(beauty of form)의 효과를 강조하듯이, 중요한 점은 시인이 선택하는 재재와 이러한 재재의 형식화 및 구성화이다¹⁰⁾. 즉 고대인과 당대 작가들의 차이는 전체와 부분의 강조에 있다고 지적되지만, 사실 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과거 그 당시가 어떠했으며 또 우리들 자신에게 무엇을 제공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¹¹⁾.

즉 아놀드는 빅토리아 시대의 역사적 시대 정신과 관련시켜 작가의 창조성과 고대인의 미학적 방법의 가치를 주창하고 있는데, 위대한 예술은 시대 정신에 달려 있으므로, 시와 역사에 관한 현실적인 사상이 우선하고 있다(Dale 155). 그러나 진공상태에서 시적 형식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아놀드는 생각했다. 데일(Dale)이 지적하듯이, 아놀드에게 중요한 형식은 인간 본성과 관련된 것, 곧 지적 도덕적으로 발전된 원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두가지 품성을 지닌 시인이 조화로운 작품을 창조하도록 조성해주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 조건이라는 것이다(158). 따라서 아놀드는 시인은 사회의 문학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 올릴 있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최고의 지적 작품만이 할 수 있는 문화지대(central platform)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시대에 대한 건박한 필요 의식은 문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면서 아놀드의 비평의 형태를 이룬다(Parrinder 124). 비평가로서의 이와 같은 사명 의식은 현대가 “도덕적 위엄성이 결여된 시대”(age wanting in moral grandeur)이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지 못하는 시대”(age of spiritual discomfort)이며 시적 탁월성이 성취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1853년의 서문”에서 고대인을 강조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CPW, I, 8). 뿐만 아니라 실제 *Merope*을 감상할 줄 모르는 대중을 지적하면서 고전을 주장하는 그의 편지에서도 비평가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What I meant them was to see in it a specimen of the world created by the Greek

-
- 10) *Merope*은 소포클레스의 영향이 엿보이는 작품으로 아놀드가 무리하게 그리이스극에 치중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놀드에 대한 그리이스의 영향력은 *Sohrab and Rustum*의 “An Episode”에서 시행의 연결어로 ‘And’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Richard Jenkyns, *The Victorians and Ancient Greece*, Oxford: Basil Blackwell, 1981. p. 37.
- 11) 고대인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1853년의 서문”에 대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는 4년뒤 “문학의 현대 요소”에서 고전 형식을 강조하는 강연을 발표하는데, 이 사실에서도 당시 영국인에게 절실했던 고대인에 관한 연구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비평가로서의 그의 사명감을 알 수 있다. 참고: Sidney M. B. Coulling, “Matthew Arnold’s 1853 Preface: Its Origin and Aftermath”, *Victorian Studies*, p. 250.

imagination. This imagination was different from our own....But the British public prefer, like all obstinate multitudes, to "die in their sins," and I have no intention to keep preaching in the wilderness (Letters I, 68-69)

내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이스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세상의 근본(예)을 그 속에서 보는 것이었다. 이 상상력은 우리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영국인은 완고한 군중처럼 죄를 지으며 죽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설교할 의향이 내게는 없다.

그러나 아놀드가 중시여기는 점은 신고전주의로의 복귀가 아니라, 시인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예술의 생산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발전에도 책임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아놀드는 사회에서 시인이 차지하는 타당한 지위에 관심을 가졌다. 물론 최고의 시는 시인의 내면의 시적인 삶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 그리고 형식은 예술가의 정신적 그릇에서 조직적으로 흘러나와야 한다. 이 정신적 실체는 형식적 특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시인이 타고난 개성이기도 하다. 문화적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최상의 것도 불가능하므로 정신적 실체를 주장하는 아놀드의 사상은 계속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비평의 기능"에서 창작을 위해서 정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비평가의 의무라고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형식은 가치있는 내적 특질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독자를 즐겁게 또는 위로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Letters to Clough, 100). 곧 인간의 원초적 애정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CPW, I, 4) 그래서 아놀드는 "시의 연구" (The Study of Poetry)에서 "훌륭한 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를 형성하고 떠받치면서 즐겁게 하는 힘을 지닌 시이다." (The best poetry is what we want; the best poetry will be found to have a power of forming, sustaining, and delighting us....) (CPW, I X, 163) 라고 말하듯이, 진정한 평가를 위해 비평가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도록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놀드는 고전을 위대한 문학으로 이해하고 권장하고 있다. 현대 작가가 고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n the sincere indeavour to learn and practise, amid the bewildering confusion of our times, what is sound and true in poetical art, I seemed to my self to find the only sure guidance, the only solid footing, among the ancients. They... knew what they wanted in art, and we do not (CPW, I, 14).

오늘 날의 당혹스러운 혼돈 속에서도 건전하고 참된 시적 예술을 배우고 연습하려고 하는 성실한 노력 가운데에서 나는 단 하나의 확실한 안내, 곧, 최고의 진실한 발판을 고대인 가운데서 찾았다. 고대인들은... 그들이 예술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위 인용에서 보듯이 아놀드는 고전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고전을 읽으라고 지적하는 까닭은 반드시 시의 제재 또는 기법 때문만은 아니다. 아놀드가 주장하는 점은 지적 그 이상의 어떤 질적인 것(Livingstone 33), 다시 말하면 고전을 통해서 당시 문학, 예술, 종교, 도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국인의 지성의 취약점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곧, 고대 문학

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안정, 온건함(sanity)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사상(관념)이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때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점은, 이 역사적 설명이 해석력, 곧 지성을 드러내므로, 반드시 적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는 시대의 해석을 가장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인은 최고의 자리를 부여 받으면서 상상력의 활동으로 시대에 관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해야 하는데, 시인이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한 아놀드의 주된 사상이다. 사실 아놀드가 고전을 중시 여긴 이유는 당시 문학의 경향뿐만 아니라 삶, 정치, 종교, 사회 현상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낭만주의적 주관주의에 반발하면서 창조자로서의 시인의 개념을 재주장하고 그리이스인의 ‘공평무사한 객관성’(disinterested objectivity)에 비중을 두고 있다. 때문에 아놀드는 사실의 관찰력으로 훈련된 판단력의 중요성을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 그리고 비평정신을 “현재에 있어서의 비평의 기능”에서 주창하면서 위대한 시대의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Schneider 65).

Ⅲ. 현대 정신

지금까지 말한 바처럼, 아놀드는 당대의 중심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현대화와 시대의 문제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시대에 대한 아놀드의 인식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시대를 변혁이나 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문제에 대한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1853년의 서문”에 이어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도 “현대”(modern)라는 개념과 아놀드의 비평 의식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대화의 실현으로서 아놀드의 총체적 완성의 추구는 고대인에 대한 단순한 언급에 머물지 않고 완전을 실지로 구현시킬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 그 전형으로 그리이스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아놀드는 그리이스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 초기 로마 시대와 비교하면서 지적 통제를 거치는 문화의 과정으로 현대의 중심 개념을 지적하고, 그 현대의 요소로 국민의 평화, 관용의 증대, 비평 정신을 들고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의 중요성을 영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지적, 심미적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평가로서의 아놀드의 의식이 이 평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Carroll 41).

아놀드는 “1853년의 서문”에서와 같이,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도 고대 그리이스인들이 현대인에게 좋은 전형이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그의 원전의 추구는 과거와 현재의 이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역사 질서에 순응하는 개인 정신의 질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의 사상은 지적 구원이라는 비평 의식과 문학의 적정성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비평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 전과는 달리, 아놀드는 현대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가 작가와 사회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1853년의 서문”에서는 예술가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지 않았으나,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는 “그렇다. 루크레티우스는 현대적이다. 하지만 과연 그를 걱정할 시

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시인이 자기 시대에 공감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시대의 활동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Yes, Lucretius is modern; but is he adequate? How can a man adequately interpret the activity of his age when he is not in sympathy with it?) (CPW I, 33) 라고 하며 자신의 비평 사상의 중심이 사회와 시대에 대한 시인의 임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삭제했듯이¹²⁾ 현대와의 대화를 의미하는 자연스런 표현을 억압하면서 현대 예술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현대 시인은 자신이 소속된 시대를 뛰어 넘어 고대인의 “건전한 규율” (wholesome regulative laws) (CPW I, 14) 를 모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아놀드의 관심사는 문학의 현대 요소였다. 아놀드에 의하면, 현대는 역사의 맹목적인 힘 위에서 솟아나는 비평적 지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힘을 파악하여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Culture and Anarchy*에서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발전의 주요한 흐름은 자신과 세상을 아는 것, 즉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는 것, 의식의 자발성이었다.” (For more than two hundred years the main stream of man's advance has moved towards knowing himself and the world, seeing things as they are, spontaneity of consciousness....) (CPW, V, 175) 라고 설명한다.

아놀드에 의하면, 현대는 시간을 초월하여 지적 특성을 의미하면서 고대 문학에서의 현대적 요소를 뜻한다. 한 시대의 현대 요소는 그 시대 자체가 지식을 구하려고 하여 성취하는 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편적으로 한 국가의 시 속에 드러나는 것인데, 특히 비평 정신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 문학은 문명이 발달된 사회의 산물로서 그 시대에 알맞도록 적절하게 최고로 생산된 것이므로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의 문학이 현대적이며 적절한 작가는 우리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아놀드는 다양한 시대 사이 도처에 놓여있는 관계의 특성과 “인류의 공동체적 삶” (collective life of humanity) 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점을 고쳐나가는 방법도 인식하게 된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

To know how others stand, that we may know how we ourselves stand; and to know how we ourselves stand, that we may correct our mistakes and achieve our deliverance that is our problem. (CPW, I, 21)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있는가를 아는 것은 곧 우리들 자신이 서는 방법을 아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서있는가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이다.

위에서의 아놀드의 지적처럼, 과거 시대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이며 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과 지적인 세련미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아놀드는 자신의 초기 비평 문학의 중심 내용이 되는 “현대”, “지적 구원” 등의 개념을

12)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는 그리이스 말기의 한 종교철학자의 상황을 극화하고 있지만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하나의 알고리이다. 참고: Dwight Culler, *The Victorian Mirror of Hist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85), p.127.

설명하면서 자신의 비평 의식을 정립시켜 가고 있다. 그는 당시 혼란과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회 전반의 병적인 경향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진정한 현대성을 수립하는데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놀드는 질서야말로 우리 삶을 규제하는 본능과 힘으로 되돌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우리 것이 아닌 또 다른 본능과 힘에 연관시켜 우리의 세계관과 삶의 규율을 확대시킬 때 질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의 현대적 요소”의 성과는 현대의 개념 확대뿐만 아니라 아놀드의 비평의 목표 곧, 과거와 빅토리아 시대의 수용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점이라 할 수 있다(Carroll 46).

아놀드는 “1853년의 서문”과는 달리 보다 융통성있게 고대 그리스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를 비교하면서 현대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적 구원은 정신의 조화로운 순용이 이루어지고 호기심을 자극할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대는 모든 것이 높이 개발된 최고 절정에 이르는 시대이며, 이 시기의 문학도 현대적이지만, 이 현대는 과거의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근거로 한다. 문학에는 시대를 해석하는 힘과 인간을 일깨워 주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문학은 시대보다 흥미로운 것이다. 이에 아놀드는 위대한 시대와 위대한 문학이 공존할 때 지적 구원은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문학, 특히 시는 현실의 각박함과 억압 속에서 정신적 자유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요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시인이 그 시대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은 시의 위대성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 비평적 지성과 현대라는 개념이 상호 연관을 맺게 되는데, 아놀드에 의하면, 현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적이다. 왜냐하면 과거 또한 지금과 똑같이 복잡했으며, 개인이 정신 활동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가 바로 현대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놀드의 현대란 연대기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성이나 가치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현대적인 사회란 이성으로 판단하고 비평 정신으로 관찰하는 사회이며, 안정과 신뢰, 자유로운 사고 활동과 다양한 관점이 허용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시대도 이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져서 생활의 편리함과 취미의 발전을 허용하는 복지가 구비됐을 때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 또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비평적 정신으로 사실을 관찰하고 사물의 법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아놀드는 고전의 요소로서 사상의 명징성, 언어의 분명함, 편견에서 벗어나는 자유, 정신의 개방등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놀드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사회의 현 상태를 개선할 것을 역설했다. 그는 문학과 시대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러한 본래의 비평 태도를 평생 간직했다. 인간이란 생활 속에서 발전하는 존재이기에, 그는 19세기 중엽의 영국 사회의 격동을 하나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지적 정신의 발아를 위한 기회로 보았던 것이다(Carroll 42). 따라서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 곧 현대 정신이란 비평적 이해력을 뜻한다. 빅토리아 시대는 현재 속에서 과거를 이용

하면서 삶을 지속적인 과정, 곧 과거 현재 미래로 보아야 하는데도, 상상적 이성¹³⁾이 아놀드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모자랐기 때문에 미래의 그들을 도와 주는 것이 바로 비평이라고 선언했다. 사실 비평 정신, 즉 “사상에 산다는 것”(living in a current ideas)은 세상을 더욱 의미있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는 이해력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했듯이, 현대 정신의 목표는 사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상은 체험에 의한 인식도 의미하므로 사상의 이성적 질서는 경험적 현실을 이성적으로 질서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평가의 임무는 뒤 떨어진 사회적 종교적 규범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풍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비평가가 현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현대화를 역사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더욱이 빅토리아조 모더니즘은 시대 그 자체를 새롭게 여기면서 20세기 모더니즘처럼 결코 과거와의 단절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현대성을 강조하는 아놀드의 고전주의가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라 강렬한 현대 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지적 구원

아놀드는 “1853년의 서문”에 이어 계속 문학의 현대적 정서의 표현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857년 강연에서도 이 현대적 절망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시대적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아놀드가 중시하는 것이 ‘지적 구원’이다. 아놀드는 이 지적 구원과 같은 의미로 ‘공평무사한 객관성’(disinterested objectivity) ‘비평’(criticism) ‘헬레니즘’(Hellenism)을 바꾸어 사용하면서 현대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지적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곧 “1853년의 서문”에서 ‘현대성’(modernity)은 지적 황폐, 다시 말하면 의혹, 낙담, ‘정신과의 대화’등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1857년의 강연에서는 현대가 요구하는 지적 구원을 통해서 지적 생기(intellectual vitality)를 설명하고 있다.

지적 구원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한 시대의 현대적 요소는 외적으로 평정, 신뢰,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하고, 내적으로는 관용과 인내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지식을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현대시의 행위를 아놀드는 지적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풍요롭고 복잡한 현대 뒤에는 과거가 존재하고, 이 현대는 개인의 이해를 기대한다. 따라서 지적 구원은 인간의 정신이 현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의 법칙을 생각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아놀드는 지적 구원이야말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13) 아놀드는 이 용어를 처음 “Pagan and Medeval Sentiment”(1864)에서 사용하면서 그리이스의 시와 사상의 質을 언급하고 19세기의 현대 정신을 새로이 하려고 했다. 이 용어는 아놀드의 목표, 교양, 최상의 자아의 이상향을 예고하지만, 용어의 의미에 대한 비평가의 분석이 다양한 가운데, DeLaura는 상상력과 판단의 종합, 반대의 것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참고 : David J. DeLaura, *Hebrew and Hellene in Victorian England*, (Austin & Londo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9), p. 64.

지적 구원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본능적이면서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이성적 질서의 필요성에 대한 만족이다(Dale 131). 이처럼 인간 본성은 질서 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빅토리아 시대는 현대처럼 혼란스러운 다양한 사실상을 보여 주었다. 이로 인하여 사실들을 서로 관련시킬 수 없고 이성적인 사고도 불가능하여 초조감으로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실들을 명상하면서 참된 시야를 가져 지적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아놀드는 주장한다.

따라서 아놀드에 의하면, 현대에서도 여전히 흥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학이다. 그는 그리스 문학이 현대라는 시대 속에서 적정한 문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없애 버릴 수 없는 관심의 대상”(an object of indestructable interest) (CPW, I, 20)일 뿐만 아니라, “지적 행위의 대행자”(a mighty agent of intellectual deliverance) (CPW, I, 20)라고 말하면서 그리스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지적 구원의 대행자이며, 시인은 한 시대를 해석하고 그 시대관을 가지는 지적 구원자가 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deliverance consists in man's comprehension of this present and past. It begins when our mind begins to enter into possession of the general ideas which are the law of this vast multitude of facts. It is perfect when we have acquired that harmonious acquiescence of mind.

(CPW, I, 20)

구원은 과거와 현재에 관한 이해 속에 있는 것이다. 구원은 사실에 대한 광대한 다양성의 법칙인 보편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시작된다. 그것은 정신의 조화로운 복원이 이루어질 때 완전해진다.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놀드는 지적 구원을 시대를 이해하는 포괄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지적하면서 그 효과를 정신의 평정, 정서보다 정신의 카타르시스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그는 비평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지적 구원자로서의 비평의 기능을 역설하고 있는데, 지적 구원은 비평가로서의 아놀드의 의식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아놀드는 이 지적 구원의 목적으로 고전 정신의 중요성에 언급하고 자신이 속한 시대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여 빅토리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고대인의 정신 문화를 분석하고 이를 따르라고 권장한다. 그는 시인이 시대를 적절하게 해석하여 문학에 반영시킨 예로서 그리스와 로마의 시인들을 들면서, “1853년의 서문”에서보다 더 강력하게 문학의 기능, 곧 사회의 구원자로서의 시인의 임무를 역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놀드는 현대에 있어서 비평적 지성(critical intelligence)은 역사의 맹목적인 힘을 초월하여 그 역사의 힘을 바르게 파악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보다 나은 힘이라고 확신했다(Carroll 43). 그는 폐망해 가는 그리스와 정치적 절정기의 로마에서 자신의 文化 理想에 상반되는 병폐를 보았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의 문제점이 “뉘이 깃들지 않은 신체”(a body

without a soul) 또는 “영국인들을 일깨워서 고무시켜 줄 수 있는 걱정만 지성과 영혼”(… adequate intellect and soul to inform and inspire them…) (CPW, I, 30)이 없는 물질 세계, 곧 정신적 무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여, 자신과 세계를 발전적으로 창조하는 비평 정신에 역행하는 영국 중산층의 태도는 분명 혼돈이며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아놀드는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삶을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임무는 그들을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정신적 고결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아놀드가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 비평에서 제시한 방법은 쿨링(Sidney Coulling)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삶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진전”(the development of an affirmative response to life)이다(234-35). 아놀드는 지적, 도덕적 구원에서 자유를 회구하는 인간의 두 가지 문화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t was a moral deliverance, ... it was a deliverance from the pride, the sloth, the anger, the selfishness, which impair the moral activity of man - a deliverance which is demanded of all individuals and in all ages. But there is another deliverance for the human race, ... for in the enjoyment of both united consists man's true freedom... But demanded far less universally, and even more rarely and imperfectly obtained; a deliverance neglected, apparently hardly conceived, in some ages... This deliverance is an intellectual deliverance. (CPW, I, 19)

그것은 도덕적 구원이며... 인간의 도덕적 활동을 해치는 오만, 나태, 분노, 이기심으로부터의 구원, 곧, 모든 개인,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구원이다. 인류를 위한 또다른 구원이 있는데...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즐거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덜 요구되어지고 아주 드물게 불완전하게 얻어지고 있는 것이며 어떤 시대에는 거의 떠올려지지도 않고 소홀히 하게 되는 구원인데, ... 이 구원이 지적 구원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비평가는 본능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향상심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에 직면하여,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이상을 자발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853년의 서문”에서 보다는 1857년 강연에서 아놀드는 시인이 현대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Dale 107). 아놀드는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 시인으로서 체험하고 있는 당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곧, 그는 자신의 비평의 주요 용어인 ‘지적 구원’으로 자신의 비평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지적 구원은 “1853년의 서문”에서 시가 기쁨을 주고 인생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어 더 발전하여 나타난 아놀드 사상의 연속인데, 이 점에 대해 캐롤(Joseph Carroll)은 아놀드의 “현대적”이라는 개념은 진보적이고 지성을 추구하는 노력이며, 이 다음에 전개되는 “비평”에 이어지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38). 캐롤의 논평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 강연은 “팽창의 시대”(epoch of expansion), “공평무사한 객관성”(disinterested objectivity), “비평 정신”과 “헬레니즘”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발전하게 되는 아놀드의 비평의 성격을 예고한다. 한편 아놀드의 지적 성향은 1860

년대까지 그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며 아놀드가 이처럼 정신의 요구사항, 즉 참된 질서와 그 결과를 증시여기는 까닭은, 데일(Dale)의 지적처럼, 문명의 복잡성 뒤에는 개인의 안정과 사회의 통합을 위압하는 위험성이 내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32).

V. 고전성과 적정성

아놀드는 현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과 관용의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와 유사한 조건으로 그리이스와 로마를 제시하면서 시인이 적정하게 해석한 시대 그리이스와 그렇지 못한 로마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853년의 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놀드가 주목하는 시기는 기원전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의 그리이스이다. 이 시기는 “전체 인류의 삶에서 현대적인 시기의 하나”(one of the modern periods in the life of the whole human race)인데, 거기에는 ‘최고도의 생명력’(the utmost energy of life), ‘가장 완전한 자유’(the utmost entire freedom) ‘인간사에 대한 가장 편견없고 이지적인 관찰들’(the most unprejudiced and intelligent observations of human affairs)이 있었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곧 현대화에 대한 아놀드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점은 엘리자베스 시대와 비교하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아놀드는 과거와 현대의 삶 사이의 대조점을 엘리자베스 시대와 페리클레스 통치 시대의 아테네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그는 우선 이 두 시대를 외적인 면에서 시민 생활의 평안이 유지되는가 하는 점과 내적인 면에서 관용의 정신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비교한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보면 그리이스 시대가 엘리자베스 시대보다 훨씬 앞서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의 적정성, 곧, 우아함과 삶의 세련성, 단순 소박함까지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놀드의 판단이었다. 즉 그리이스의 민주사회에서는 대중이 정열, 지성,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아놀드의 설명에 따르면, 아테네의 문명이 융성한 시기는 삶의 에너지, 자유, 관찰이 조장되고 “이성이 발달된 점에서 아테네는 우리와 비슷하다.”(This new world in its maturity of reason resembles our own.) (CPW, I, 31)라고 하며 현대적이라고 한다.

또한 그리이스 문화는 인간과 시대의 통합을 이룩한 문화이며, 아테네는 현대적이며 적정하여 그 문명과 문학이 동시에 훌륭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테네에는 빅토리아 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비평적 지성과 심오한 도덕적 통찰력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균형, 곧, 조화가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 the intellectual maturity of man himself; the tendency to observe facts with a critical spirit; to search for their law, not to wander among them at random; to judge by the rule of reason, not by the impulse of prejudice or caprice. (CPW, I, 24)

...인간 자신의 지적 성숙, 즉 비평정신으로 사실들을 관찰하고 이런 저런 사실들을 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법칙을 찾고 편견과 번덕의 충동으로가 아니라 이성의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대의 특징인 대중의 지적 성숙 곧 비평정신이 중시되고 있다.

아놀드는 지성과 비평 정신을 소유한 이상적인 인간형, 즉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동시에,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성을 겸비한 인물로 페리클레스를 들면서, 이런 특질이 현대 사회에 재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아놀드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에서 사실을 추출해내고 비평적으로 판단하는 시대의 해석자로 그리이스 시대의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를 손꼽고 있다. 투키디데스는 고립된 사상가도 아니었으며 청중들에게 미래의 시대를 이야기한 역사가이다. 그는 “시대와 국가의 보편적 지성”(the general intelligence of his age and nation)을 함께 나누면서 사려깊은 철학자의 언어를 구사하고 지적 성숙을 보여준 역사가라고 풀이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페리클레스 시대가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발전된 시대이며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무척 흥미로운 시대라고 아놀드는 설명한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아놀드는 그리이스의 영광을 인식했으며 그 자신의 상상력을 토대로 그리이스의 민주주의를 지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규율로 보았다. 이처럼 현대를 고대 특유의 ‘성숙성’으로 설명하는 아놀드의 관점은 현대화의 움직임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므로, 이 흐름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그리이스 사회가 이룩해낸 정신적 성숙을 중시여기는 아놀드의 이러한 비전이 그의 당대에 투영되어 비평 정신의 수립과 당대인의 인간화를 위한 일생의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의 영국 사회는 이성적인 규율이 없고 편견과 변덕이 난무하고, 비평 정신이 결여된 사회였다. 당시는 비시적인 시대(unpoetical age)로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가치에 있어서 기계적이며 외적인 시대, 편견이 지배적인 시대였다(Robbin 25). 이것은 영국이 지리적으로 대륙에서 떨어져 있어서 영국 문학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빅토리아인들이 문화적으로 고립된 까닭은 유럽의 지성과는 동떨어진 당시의 물질 풍토 때문이라고 아놀드는 생각했다. 이런 시대는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비평적, 건설적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효과적 접근을 위해 더욱 현대 정신이 요구된다. 이에 아놀드는 인간의 삶이란 상호 연관을 갖는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소외감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은 타인과 자신을 알고 자신의 실책을 뒤우치고 구원받는 것이며, 이것이 곧 영국 중산층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적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spectacle(facts) is the collective life of humanity. And everywhere there is connection, everywhere there is illustration: no single event, no single literature, is adequately comprehended except in its relation to other events, to other literatures.

(CPW, I, 20-21)

...사실이란 인간의 공동체적 삶이다. 어디에서나 관계가 있고 어디에나 실례가 있다. 다른 사건, 다른 문학과의 관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단 한번도 사건, 문학이 적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인은 시대와의 관련성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이스 문화의 영광의 근원은 자유와 비평정신에서 비롯되었듯이, 시인은 현대의 결과를 조절하고 혼란을 지성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병적인 것을 즐거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아놀드는 시대를 교화하는 문학의 기능을 “비평 정신”(critical spirit)과 “이성의 규율”(rule of reas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시적, 비평적 이론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이 “비평 정신”이란 용어로 *On Translating Homer* (1861),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1864), *Culture and Anarchy* (1869)에서 강조하는 비평 활동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아놀드는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 문학의 적정성(adequacy)과 비적정성(inadequacy)의 개념을 면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 쇠약 증세로 설명하면서 적정 문학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비평의 기준을 시대에 적용해가는 능력, 곧 적정성에 언급한다. 따라서 적정한 시인은 최대의 향상된 개인의 평온함으로 인간 본성을 제시하는 시인이며 적정한 문학의 조건은 고도의 문명 시대와 그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있는 시인들이다. 이에 개인의 지적, 도덕적 능력은 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놀드는 문체의 균형미¹⁴⁾를 의미하기도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고, 어떤 원리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예술의 형식에 강조하고 있다. 아놀드에 의하면 적정성은 완전하고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서 복잡한 현대의 발전을 통찰력에 의한 평정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뜻한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방법으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점을 극복한 창조적 작가의 특징은 “심각한 즐거움”(serious cheerfulnes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아놀드가 적정한 작가를 중시여기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자신을 개발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문학이 사회에서의 결정적 요소로서 문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놀드는 과거의 인물에서 현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인의 시대 해석 능력을 중시했다. 시인은 시대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그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놀드가 말하는 자질을 겸비한 시인이란 개인 성품의 진지성으로 인성이 높게 개발된 전형적인 인물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성의 완전, 전체성을 추구하면서 아놀드는 “To a Friend”에서 소포클레스(Sophocles)가 “삶을 침착하게 그리고 전체로 바라본 시인”(who saw life steadily and saw it whole)으로 그려지고 있듯이, 시인은 “깊고 넓게”(deep and wide)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포클레스는 아놀드의 종합적인 인물로서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적정성의 전형이다. 여기서 종합성은 소포클레스의 전체성, 조화를 이룬 영혼, 도덕성과 예술적 재능의 조화를 뜻하며 아놀드가 주장하는 理想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다(Anderson 276-77). 이 점에 대해 슈나이더(Schneider)는 소포클레스의 시적 특성이 아놀드 자신의 사상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14) 아놀드는 인생을 하나의 전체, 통일체 보아서 각 부분은 전체의 유형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체성의 개념,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당시 시 경향은 통합이 안되는 파편, 소위, 단절의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아놀드는 자기 혁신을 성취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시를 중시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적정성의 기준은 구성력, 문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적하고 있지만(76), 무엇보다도 아놀드는 위대한 시대의 사실을 이해하고 온 국민에게 시대를 걱정하게 해석한 개인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수 있는 시를 갈망했다. 그래서 이에 알맞은 인물로 민주주의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을 한 소포클레스가 선택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놀드는 소포클레스를 시인의 전형으로 추대하고 있으며, 소포클레스의 시는 “그 시대에 높이 개발된 인성, 즉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조화를 이룬 성품의 발전”(…the highly developed human nature of that age-human nature developed in a number of directions, politically, socially, religiously, morally developed-in its and most harmonious development in all these directions…) (CPW, I, 28)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그를 다음과 감탄하고 있다.

…in Sophocles there is the same energy, the same maturity, the same freedom, the same intelligent observation; …And therefore I have ventured to say of Sophocles, that he “saw life steadily, and saw it whole”. (CPW, I, 28)

…소포클레스에게는 똑같은 힘, 성숙함, 자유, 지적인 관찰이 있다… 이에 “소포클레스는 삶을 한결같이 전채로 바라 보았다”라고 감히 말하는 바이다.

…a man who has mastered the problem of human life, who knows its gravity and is therefore serious, but knows that he comprehends it, and is therefore cheerful…

(CPW, I, 35)

…인간의 삶의 문제점을 극복한 시인, 삶의 엄숙함을 알기 때문 진지한 시인, 그러나 삶을 이해하므로 쾌활한 사람.

따라서 위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모든 방면에서 조화로운 계발을 의미하는 소포클레스의 설명에서 지성과 도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Culture and Anarchy*의 주제를 짐작할 수 있다(Neiman 85).

한편 아놀드는 “1853년의 서문”에서도 걱정과 비적정의 개념을 풀이하여 비적정한 것을 “지적 활동의 과다로 인한 병적인 상태”(morbidly)로 규정한 바 있지만, 그는 소포클레스와 상반되는 시인들로 호레이스(Horace), 루크레티우스(Lucretius), 버질(Virgil)을 들고, 이들은 평온함이 부족하여 경박하고 우울하며 생각이 바르지 않고, 침울하다고 말한다. 그는 루크레티우스의 시를 논하면서 “그의 시가 우울하고 권태로운 결과를 만들었다.”(It has produced… the feeling of depression, the feeling of *ennui*.) (CPW, I, 32)고 지적한다. 루크레티우스는 자신이 처한 시대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과 요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 들었으나 안정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하고 병적이 되어 결국 자신이 속한 시대를 걱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또한 버질의 경우, 그의 위대성은 인정되지만, 나약하고 민감한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우울(a moody gloom)과 비애(a touching sadness, but a sadness)를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또 그가 사용한 서사시 형식 또한 복잡한 현대상을 전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결국 세상을 철저히

해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놀드는 만일 버질이 인간의 삶을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었다면 서사시 형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호레이스도 현학자의 특성대로 회의적이고 병적이며 진지성(seriousness)이 결여되고 편견은 없지만, “확신과 열정 그리고 힘이 없어”(without faith, without enthusiasm, without energy) (CPW, p. 36) 시인으로서의 비적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아놀드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로마의 3대 시인을 예로 들면서 ‘현대’라는 주제에 접근하여 사상과 감정으로 결정지어지는 인간의 행위, 즉 진지성과 기쁨을 전달해야 하는 시인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엔겔버그(Engelberg)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현대라는 개념은 연대기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質, 다시 말해서, 먼 과거가 현대적인데 최근의 과거는 전혀 현대적이지 아니듯이, 적정성이라는 개념으로도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놀드의 고대와 현대는 서로 하나의 선 위에 서로 근접해 있는 것이며, 인간성과 인간사를 바르게 전달한 먼 과거의 문학도 현대적이라 할 수 있다(19).

지금까지 설명해온 바와 같이, 아놀드가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 주장한 논지의 하나는 지적 구원인데, 이는 현대와 과거를 포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詩는 통찰력과 함께 평온과 즐거움을 주어야 하며, 진정한 통찰력은 인간의 성품 전체에 대한 정서적 이해를 전달하는 중요한 내적 효과가 된다는 점이다. 문학은 시대를 해석하는 가장 흥미로운 것이며, 그 속에 지성이 깃들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후퇴하지 말고, 그 시대의 완전하고 적정한 해석을 찾아야 한다고 아놀드는 강조한다.

이상 시인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아놀드는 시인의 시대에 대한 해석 능력을 주장하듯이, 그는 그리이스 문학 특히 그리이스의 시를 이룩한 것은 전체성(wholeness)이라고 인식하고 시인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처한 지적 역사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고대 문학의 가치를 부분이 아닌 전체성에서 찾는 아놀드의 주안점은 시인이 일상적 삶에서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라 시인의 시대에 관한 적정한 해석은 사실주의, 감상주의적 이야기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Schneider 73). 아놀드는 허위, 위선, 무지를 배척하면서 명정성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을 하나의 통합된 구도로 보고 있다. 아놀드는 진실을 알려고 하는 인식이 명정이라고 여기듯이, 사실에 근거를 둔 진실이라는 정서를 토대로 하여 당시 사회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 사실은 아놀드가 선배 낭만주의자들보다 더 실질적으로 구원자로서의 시인의 임무를 중시여기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지만, 이것은 당시 아놀드의 입장을 고려하여 볼 때, 시인에서 비평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까닭을 대변하기도 한다(Johnson 210). 반면 톰슨(Thomson)은 기원전 5세기의 그리이스를 최고의 문학의 시기로 인정한 아놀드의 생각은 용납안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아놀드는 다양한 문학을 지닌 페리클레스시대에 너무 소포클레스에 치중하여, 마치 천국에만 있는 것을 추구한 결과를 보였지만, 고전문학의 개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논평하고 있다(239-40). 한편 데일(Dale)은 시인이 시를 통하여 구원을 필요로 하는 현대에서 아놀드가 이런 지적 구원을 주장한다는 사실이 다소 낭만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10), 앤더

슨(Anderson)에 의하면, 아놀드는 그리이스 고전의 권위자로서 고전에서 읽은 것보다 고전을 더 많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고전은 수사학적 전략으로서 아놀드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268).

그러나 아놀드는 초기에 미학적인 견지에서 시인의 능력을 생각했던 견해에서 벗어나 점차 자아를 중시여기는 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그가 구원을 제공하는 시인의 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인간 본성'의 '조화로운 계발'에 힘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인성이란 아놀드 의하면 몇가지 본능으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힘이 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최대의 행복은 본성의 모든 면을 충족시키면서 조화로운 통합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아놀드는 인성을 인간의 두가지 성향, 곧 지적, 도덕적 성향으로 구분하고 지적 구원이 필요한 현대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Culture and Anarchy*에서 계속하여 도덕적 구원보다 헬레니즘의 지적 구원이 필요한 것임을 역설하면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완전한 것임을 아놀드는 밝히고 있다(268).

그러나 아놀드는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의 자신의 취지가 충분히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을 "강연은 제가 좋아하는 평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평론은 다른 것들과 맞지 않습니다." (Even my lectures are not work I thoroughly like, and the work I do like is not very compatible with any other.) (*Letters*, I, 166.) 라고 애석해 했는데, 이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분열된 영국 사회가 통합을 강조하는 아놀드의 이상을 받아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는 빅토리아 시대는 명상해야 할 주요한 사실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를 해석하는 문학의 기능은 그 후 아놀드 비평이 강조하게 되는 중심 사상이다. 그는 1862년 11월 현대 프랑스 시인, "Maurice de Guerin"에 관한 강연을 할 때, "시의 힘은 해석력, 즉 우주의 신비를 흑백 논리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새롭고도 친밀한 감각과 우리들과의 관련을 각성시킬 정도로 사물을 다루는 힘이다." (The grand power of poetry is its interpretive power:... not a power of drawing out in black and white an explanation of the mystery of the universe, but the power of so dealing with things as to awaken in us a wonderfully full, new, and intimate sense of them, and of our relations with them.) (CPW, III, 12-13) 라고 시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아놀드는 두 가지 사항, 즉 '고도의 문명시대'와 '그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적정한 문학인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개인의 도덕적, 지적 능력은 문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역설하고 있다(Carroll 46). 아놀드에게 빅토리아인들은 비평 정신의 결

15) 이 인성의 조화로운 계발의 개념은 비코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코에 의하면 구원받은 현대 사회는 인간성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사회이며 그 대행자는 기독교 종교이다. 이에 아놀드는 인간성의 계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구원은 詩의 수단과 그 효과로 얻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참고 : Peter Allan Dale, *The Victorian Critic and the Idea of History*, p. 109.

여와 심미적 무감각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당시의 영국은 더욱 로마와 같이 영혼이 없는 국가로 보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정신 생활에 힘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고상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물질적인 사상을 배격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자각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 본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된 내적 생활이 모든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상은 아놀드의 비평의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Culture and Anarchy*와 “문학과 과학”(Literature and Science)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놀드는 인간의 완성은 과거와 현재의 이해에서 그리고 역사의 질서에 따라 순응하는 개인 정신의 올바른 질서 의식 속에서 성취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빅토리아인의 편협성을 일깨워주는 방법으로서 지적 구원이라는 자신의 비평의 성격을 설명했으며, *On Translating Homer*에서도 고전을 통한 문화적, 정신적 통합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의 현대적 요소”에서의 지적 구원은 *On Translating Homer*에서 문제되는 장중한 문체와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VI.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놀드는 시대를 초월하는 현대성을 지닌 고대 문학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1853년의 서문”에 대한 당시 비평가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는 그리스 문학을 강조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에트나 산의 엠페도클레스”를 식재하기도 했지만, 이 서문에서 아놀드가 주장하는 것은 고대 작가들의 적정성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는 그리이스 문학의 가치이다. 물론 아놀드는 빅토리아 시대가 페리클레스 시대는 아니었으므로 “위대한 문학 또는 예술 작품 생산의 창조력의 행사는 모든 시대, 상황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the exercise of the creative power in the production of great works of literature or art... is not at all epochs and under all conditions possible...) (CPW, III, 260) 라고 지적하듯이, 시인들은 인간의 존재 문제를 극복하고 정적해야 한다는 아놀드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Merope*을 보면 그 자신도 시대 해석에 적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지만,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곧, 그의 비평의 성격이 계속해서 낭만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지성의 결여 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면서 현대화의 문제에 치중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더욱이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시인의 시대 해석 능력, 즉 시대에 관한 비평 정신과 지성을 요구하는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는 이해를 요구하는 복잡한 사실에 직면해 있으므로 지적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아놀드는 강조했다. 아놀드에 의하면, 현대는 자유, 평화, 평온으로 특징지어지면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비평적 창조적 지성이 있는 역사의 한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의 어떤 시대도 이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현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아놀드는 고전의 요소로서 사상의 명징성, 언어의 분명함,

편견에서 벗어나는 자유, 정신의 개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력, 곧 구원은 인간의 원초적 애정과 현대성을 지닌 그리이스 고전을 통하여 과거와 연관시켜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아놀드는 주장했다. 풍요롭고 복잡한 현대 뒤에는 과거가 존재하고 이 현대는 개인의 이해를 기다린다. 따라서 지적 구원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현대 사회의 다양성의 법칙을 생각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특별한 의미로 “현대에 있어서의 문학의 요소”는 어떻게 시인이 삶의 비평을 평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시인의 작품의 실체는 삶과 사상, 즉 사상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되고 평가된 삶이기도 하므로, 아놀드는 사상과 삶의 실체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곧 그리이스 문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의 현대적 요소” 속에는 19세기 중엽의 영국 사회의 분열상을 그리이스 문화의 理想인 통합으로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아놀드의 염원이 표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전형을 그리이스 문명에서 찾았다는 점 때문에¹⁶⁾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문학의 현대적 요소”(1857)는 “1853년의 서문”과 함께 아놀드의 기본적인 비평적 태도를 형성하면서 아놀드의 독자적인 입장을 밝혀 주고 있다. 곧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현대 사회와 빅토리아 시대의 삶에 대한 관찰과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이스 문학이 당시 영국에 지적 구원을 전하는 강력한 대응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이 강연은 현대(modernity)에 대한 아놀드 비평이 계속하여 전개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글이다. 특히 아놀드의 비평이 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독일을 모델로 하여 문화 비평으로 발전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고하므로 “문학의 현대적 요소”는 영문학과 아놀드의 정전(canon)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평론이면서 동시에 영문학의 고립성을 비난하는 선언문이기도 하다(Carroll 40). 이런 맥락에서 “현대에 있어서의 문학의 요소”는 계속 이어지는 아놀드의 사상의 발전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비평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평론은 “1853년의 서문”과 클라우(Clough)와의 편지에서 발전된 아놀드 사상의 표현이며 앞으로의 그의 비평에 중심이 되는 사상, 곧 헬레니즘을 예상하게 하며 그리이스 문학에 대한 아놀드의 관심은 *On Translating Homer*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놀드는 빅토리아 사회가 요구하는 현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사가의 기능이 시인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는 현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재구성하려는 노력도 현대화의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현대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현대화를 이루어나가는 도덕적 행위이자 삶의 진실을 얻는 길이므

16) 이에 대하여 Donald D. Stone은 무질서, 저속함, 물질주의, 냉소주의에 반대되는 질서, 미, 이상주의의 세계가 필요한 아놀드에게 그리이스는 필요한 신화였다고 논평하고 있다. 참고: Donald D. Stone, "Arnold, Nietzsche, and the 'Revaluation of Values'",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43 (3) (December 1988), p. 301.

로, 아놀드는 현대화의 복합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성, 곧 지적 성숙을 주장했다. 따라서 빅토리아 시대의 현실에 대한 아놀드의 이해와 정신의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해결 방안은 이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이것은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현실 과제이기도 하므로, 아놀드에 대한 평가는 당대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중요성을 띠고 있다.

Works Cited

- Anderson, Waren. "Arnold and the Classics" in *Matthew Arnold*. ed. Kenneth Allott. London : G. Bell & Sons, 1975.
- Arnold, Matthew. *Th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ed. R. H. Super. Vol. I. Ann Arbor : Michigan UP, 1960.
- . *Letters of Matthew Arnold 1848-1888*. ed. George W.E. Russell. 2 Vols. London : Macmillan, 1895.
- . *Unpublished Letters of Matthew Arnold*. ed. Arnold Whitridge. New Haven : Yale UP, 1923.
- . *The Letters of Matthew Arnold to Arthur Clough*. H. F. Lowry, ed. Oxford : Clarendon Press, 1932.
- Babbit, Irving. "Matthew Arnold" in *Irving Babbit Representative Writings*. ed. George A. Panichas.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1.
- Carroll, Joseph. *The Cultural Theory of Matthew Arnold*.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Coulling, Sidney. "Matthew Arnold's 1853 Preface : Its Origin and Aftermath". *Victorian Studies*. 7(3) March 1964. 233-63.
- . *Matthew Arnold and His Critics*. Athens : Ohio UP, 1974.
- Culler, Dwight. *The Victorian Mirror of History*. New Haven and London : Yale UP, 1985.
- Dale, Peter Allan. *The Victorian Critic and The Idea of Hist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DeLaura, David J. "Arnold and Literary Criticism : Critical Ideas" in *Matthew Arnold*. ed. Kenneth Allott. London : G. Bell & Sons, 1975.
- Engelberg, Edward. "Space, Time, and History : Towards the Discrimination of Modernity." *Modern Studies (Literature and Culture 1920-1940)* 1 (1974). 7-25.
- Farrell, John P. "Matthew Arnold and the Middle Ages : The Uses of the Past" *Victorian Studies* 13(3), 319-38.

- Gunn, Giles. *The Culture of Criticism and the Criticism of Cul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Jenyns, Richard. *The Victorians and Ancient Greece*. Oxford : Basil Blackwell, 1981.
- Johnson, E. D. H., *The Alien Vision of Victorian Poetry*. Princeton : Princeton UP, 1952.
- Livingstone, R. W., *Greek Ideals and Modern Life*. Oxford : Clarendon Press, 1935.
- Neiman, Fraser. *Matthew Arnold*. New York : Twayne Publishers, 1968.
- Parrinder, Patrick. *Authors and Authorit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77.
- Robbin, William. *The Arnoldian Principle of Flexibility*. B. C. : University of Victoria Press, 1979.
- Schneider, Mary W. *Poetry in the Age of Democracy*.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9.
- Stone, Donald D. "Arnold, Nietzsche, and the 'Revaluation of Values'",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43(3) (December 1988), 289-318.
- Thomson, J. A. K. *The Classical Background of English Literatur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48.
- Trilling. Lionel. *Matthew Arnol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Summary

Arnold's Classical Vision in “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

Sun-Hee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rnold's intellectual and aesthetic ideal in “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 This paper analyzes his main ideas that influenced the lives of the Victorians, by focusing on his classical vision. Arnold is known for his belief in the ennobling power of great literature. He thought the wider contributions of literature particularly important in his own time. There is no doubt that he saw a profound need in his time and aspired to envision a society in which man's faculties are developed to a totality. His aim was the humanization of man, the progression towards man's true and full humanity in society.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Arnold was sure that poetry should not be a personal confession or just an outpouring of the poets's spontaneous emotion. He suggested Sophocles for a model, not only because Sophocles was a great dramatic poet, but also because he spoke to the people of the Athenian democracy. Arnold sees this age of democracy with its classical poets as a paragon. For this reason he turns to the classical poets of this age. He thinks that the modern poet must understand that age. Thus Arnold read about the great age of the past and saw it as modern in its intellectual maturity.

Arnold suggests that the poets must share the function of historians who are able to comprehend both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hen offer an adequate interpretation of the spectacle of life that is history. He believes that intellectual maturity of the people is essential in a democratic age. He asserts the literary critic should adequately interpret the activity of his age. He strongly suggests “adequate” writers are those who are best able to help us comprehend our times. Hence poet is one who represents a highly developed human nature through personal serenity. And he suggests two things are necessary for an adequate literature : an age of high civilization and men with the power to interpret it.

Arnold says the poet's matter is “the hitherto experience of the world”, i.e. historical facts. Poets must offer an interpretation of the world in order to bring about an intellectual deliverance. This begins when “the mind begins to enter into possession of the

general ideas which are the law of this vast multitude of facts". The effect of this intellectual deliverance is a calming of the mind, a catharsis of the mind rather than an expression of emotions. The present time and even the future, Arnold insists, can be understood only in relation to the past. The poet, like the historian, must understand what the important events in a great age are, and must be able to express them intelligently. The poetic genius both animates its imaginative work and offers an adequate interpretation of the age. Therefore in the hierarchy of wisdom Arnold ultimately gives the poet the highest place.

Arnold goes on to add that the literature of Periclean Athens is modern because "this new world in its maturity of reason resembles our own." His actual recommendation is to study the Greek classics in order to find the only sure guidance, the only solid footing through the bewildering confusion of our time. He emphasizes that Greek literature is even in modern times, "a mighty agent of intellectual deliverance."

Therefore, "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 is a continuation of the thesis Arnold had presented in "The 1853 Preface" — that the ancient Greek writers are invaluable guides for the modern poet. The main achievement of "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 is a broadening of the concept of modernism so as to include any brilliant, complex civilization. It also estsblishs for Arnold his own critical goal—the comprehension of this present age with the past. Thus his effort to view liteature in the larger perspective of history and his concern with historical epochs and culminating ages anticipate the perspectives of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1864). Thus "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 retains an important place in Arnold's canon and in the canon of English literature.